

Macromolecular Research의 Springer 공동출판에 즈음하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8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된 2009년도 추계총회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우리 학회의 영문학술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는, 내년 1월호부터 세계적인 출판사인 Springer와 공동 출판됩니다. 2002년부터 Macromolecular Research는 SCI 등재 학술지로서 해마다 impact factor가 조금씩 증가되었으며 2009년도 impact factor는 1.787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Springer와의 공동출판 협약으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Macromolecular Research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애정어린 협조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acromolecular Research를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고분자 전문학술지, 특히, 적어도 아시아 지역 최고의 고분자 전문학술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출판사를 통한 출판이 불가피하다는 그간의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영문지 편집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부터 Springer와 공동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출판사와의 출판 협약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의 영문지를 국제적인 학술지로 질적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여 윤진산 회장님의 적극적인 격려에 힘입어 수개월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협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authorship은 물론이고, 출판된 논문들을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자유롭게 access할 수 있어야 Macromolecular Research에 게재된 논문들의 피인용도도 높아져서 진정한 국제학술지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Springer와 공동 출판하게 될 Macromolecular Research는 당분간은 현재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따를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Springer사가 전세계적인 보급망을 가지고 운영하는 Springer Link를 통해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Springer와의 공동출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Macromolecular Research의 위상은 상당한 도약을 이룰 것이며 impact factor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봄 부터 시작된 Springer사와의 협약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미국 Wisconsin 대학교의 유 혁 교수님, 윤진산 회장님, 최길영 수석부회장님, 조길원 전무이사님, 그리고 권용구 출판부위원장님께 Macromolecular Research의 모든 편집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할 Springer와의 공동출판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우리 Macromolecular Research에 더욱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부응하여 Macromolecular Research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편집위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문지 편집위원장 하창식(부산대학교) 올림>